

## 공신력 추락... 못 믿을 오디션 프로

MBK·올림·스타십 압수수색  
기획사 의도적 개입 여부 파악  
하재근 "가요계 전체 신뢰 하락"

케이블채널 엠넷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신력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한 중소 가요기획사들의 노력이 가요계 영향력 확대만을 노린 일부 방송사의 '과육'에 의해 훼손당할 게 아니냐는 시각마저 나온다.

### ● '투표 조작' 의혹, 사실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프로듀스X101'(프듀X)을 통해 데뷔한 그룹 엑스원(원승우·조승연·김우석·김요한·이한결·차준호·손동표·강민희·이은상·송형준·남도현)의 일부 멤버가 소속된 MBK엔터테인먼트와 올림엔터테인먼트, 스타십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사무실 세 곳을 압수수색했다. '프듀X' 방송 내내 유력하게 데뷔자로 꼽혔던 일부 연습생이 탈락하고, 이외의 인물들이 데뷔자로 포함되자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각 기획사들이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엠넷 '프로듀스X101'을 통해 데뷔한 그룹 엑스원. 경찰은 일부 멤버의 소속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제기된 '투표 조작' 의혹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프듀X'는 특히 마지막 방송에서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의 유료 투표수가 '749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온 뒤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급기야 시청자들이 이를 고발하면서 경찰은 7월 CJ ENM의 '프듀X'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 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여기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경찰은 최근 일부

관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듀X' 관계자는 이날 "수사 상황과 결과를 아직 전달받지 못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획사 측도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 '사실이라면 공정한 과정에 대한 훼손' 경찰 수사를 통해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프듀X' 등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 존재 여부를 고민해야 할 만큼 시청자 신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관련 수사 대상을 이전 시즌으로까지 넓히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표 격인 '프로듀스' 시리즈 등이 그동안 워너원, I.O.I 등 스타들을 배출하며 케이팝 시장을 더욱 넓히는 데 일조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요계 안팎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 "방송사들이 연습생들의 데뷔 기회를 그나마 공정한 기준에 따라 얻으려는 중소 가요기획사들의 힘겨운 노력을 이용해 자사 영향력을 키우는 데에만 몰두해온 탓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가요관계자는 "시청자와 대중은 실력과 재능을 지닌 연습생들에 대해 자신들의 투표를 통해 정당하고 공정한 과정을 보장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면서 "만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그에 대한 의도적 훼손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의혹은 오디션 프로그램은 물론 가요시장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 2007년 이창동 감독 '밀양'

## 칸의 여왕 만든 전도연 '인생작'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원망스러웠다."

올해 3월 감독과 제작자 등 영화전문가 100인이 뽑은 '한국영화 100년을 대표하는 여배우'(스포츠투가 '한국영화 100년 설문조사')에 선정된 전도연이 대표작인 '밀양'을 떠올리며 꺼낸 말이다. 극한으로 전도연을 몰아간 '밀양'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이라는 배우 인생 최고 영광을 안겼다.

'밀양'은 이창동 감독이 연출하고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해 2007년 세상에 나왔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두고 '용서'라는 화두에 직면한 여자 신애(전도연)와 그의 주변을 맴도는 남자 종찬(송강호)의 이야기다.

극의 배경인 밀양은 '비밀의 햇볕'이란 뜻을 가진 도시이자, 신애의 죽은 남편의 고향.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다 불행의 수렁에 빠진 신애를 통해 용서를 넘어 구원의 메시지를 던지는 명작으로, 한국영화 100년에 기록되고 있다.

'밀양'은 전도연에게 '칸의 여왕'이란 값진 수식어를 안긴 한편 이창동 감독에게도 전기가 된 작품이다. '박하사탕' '오아시스' 등을 내놓았던 감독은 '밀양'을 통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처음 이름을 올렸고, 이후 '시'와 '버닝'까지 경쟁부문에 차례로 올라 세계 영화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용서와 구원의 화두를 던지는 '밀양'은 일면 잔잔한 사랑 이야기이다. 개봉 당시 송강호는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멜로 영화"라고 밝히기도 했다. '밀양'을 내놓고 10년이 지난 2016년, 송강호에게 "다시 찍어보고 싶은 영화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주저 없이 '밀양'이라고 답했다. "신애와 종찬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 케이팝의 어벤져스 '슈퍼엠', 슈퍼파워 보여줄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슈퍼 아이돌 그룹이 2일 베일을 벗는다. '아이돌 명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대표 가수들이 연합한 그룹 슈퍼엠이 이날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슈퍼엠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사이아의 태민, 엑소의 백현·카이, NCT 127의 태용·마크 그리고 중국그룹 웨이비의 루카스·텐 등 7명으로 이뤄진 그룹이다. 저마다 그룹 멤버로서는 물론 솔로 활동에서도 남다른 팬덤과 입지를 키운 이들이 한 데 모여 일으킬 폭발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나서기 전부터 미국 빌보드는 "케이팝 어벤져스"라며 "블록버스터급의 가장 이상적인 라인업"이라고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뿐만 아니라 론칭 소식만으로도 단숨에 빌보드 '소셜 50' 차트 2위에 진입하기도 했다.

국내 시동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컨벤션타워 5층에서 열리는 기자회견부터 건다. 국내 팬들에게 먼저 그룹 결성 배경과 목표,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멤버들이 직접 설명한다.

태민·백현 등 SM 프로젝트 그룹 오늘 기자회견...4일 공식데뷔 타이틀 '자핑' 티저 150만뷰 후끈

공식적인 데뷔는 4일이다. 데뷔 앨범 '슈퍼엠'을 전 세계 동시 공개한다. 미국 아마존 등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해 이날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음악 플랫폼과 국내 각종 음원사이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선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밤 내놓은 타이틀곡 '자핑'(Jopping)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150만 조회수를 이미 돌파했다. 웅장한 느낌의 일렉트로닉 팝 장르로 '우리만의 무대를 불태우고 즐기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보컬과 춤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멤버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와 카리스마는 30초 분량 영상을 통해 전세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5일(이하 한국시간)에는 미국 LA 할리우드의 캐피톨 레코드 타워에서 야외 쇼케이스 '슈퍼엠:라이브 프롬 캐피톨 레

코드 인 할리우드'를 열고 신곡을 선보인다. 이날 현장은 SM타운 공식 유튜브 채널이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뮤직비디오, 춤 연습 영상, 사진 등 슈퍼엠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도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문을 연다. 국내에서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압구정동 SM셀러브리티 센터에서, 미국 매장은 6일부터 13일까지 LA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인 '7080 할리우드'대로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엠이 이처럼 '월드와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미국시장에서 케이팝의 영향력을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돌 프로듀싱의 원조격인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직접 프로듀서로 나서고, 폭넓은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미국 캐피톨 뮤직과 이미 손잡았다. 빌보드는 이에 대해 "미국시장에서 K팝의 주류로 선도하려는 SM의 시도다"고 평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프로젝트 그룹 '슈퍼엠'은 NCT127 태용과 마크·엑소 백현·사이아 태민·엑소 카이·웨이비 텐·루카스(왼쪽부터) 등 각 그룹의 정예 멤버들이 뭉쳐 '케이팝 어벤져스'로 불린다.

### 연예뉴스 HOT 4

#### 박규리, 동원건설 회장 장손과 교제



박규리

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31)가 7세 연하 동원건설 회장의 손자와 교제 중이다. 소속사 더씨엔티는 1일 "박규리가 동원건설 송승헌 회장의 장손인 송자호 M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수석큐레이터와 최근 만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평소 미술에 관심이 깊은 박규리는 올해 여름 서울 강남 M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열린 존 버거맨 전시회에서 송 수석큐레이터와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수석큐레이터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동원건설 송승헌 회장의 손자이자 송재운 대표이사의 아들이다. 박규리는 2007년 그룹 카라로 데뷔해 '프리티 걸', '미스터' 등을 히트시켰다. 2016년 그룹 해체 이후 연기자로 전향, 드라마 '장영실', 영화 '불링 불링' 등에 출연해왔다.

#### 돌아온 '가요톱10' 유튜브서 재현



손범수

'온라인 탑골공원'이라 불리며 화제인 유튜브 채널 콘텐츠 '어게인 가요톱10'이 1990년대 KBS 2TV '가요톱10'을 재현하며 3일과 10일 방송한다. 1993년부터 막을 내린 1998년 2월까지 MC였던 손범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박미경, 김완선, 현진영, 구준엽, 이상우, 김원준, DJ DOC 등 1990년대를 빛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 '어게인 가요톱10'을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될 예정이다.

#### 정유미, DHC 광고모델 계약 파기



정유미

연기자 정유미가 '협한' 발인으로 논란이 된 일부 화장품 기업 DHC와 광고모델 계약을 끝냈다. 소속사 에이 스팩토리는 1일 "정유미와 DHC코리아의 모델 계약을 종료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모델료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DHC의 자회사 DHC텔레비전의 시사프로그램 '도라노론 뉴스'가 8월 출연 패널들의 협한 발인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정유미는 위약금과 상관없이 모델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대학가요제 출신 스타들 전야제 공연

이정석, 원미연, 이규석, 조갑경 등 'MBC 대학가요제' 출신 스타들이 10년 만에 열리는 '2019 대학가요제' 전야제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MBC플러스와 CBS가 공동 주최하는 '2019 대학가요제' 전야제에서 공연을 펼친다. 이들은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MBC 대학가요제'에서 입상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2019 대학가요제' 본선은 5일 같은 무대에서 열린다.